동아시아 중세국가의 佛敎師傅

許 興 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머리말

역사시대는 왕조에서 시작되었고 왕조에서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오랜 기간 존속하였다.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선출하던 부족연맹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대와 근세는 세습의 국왕이 우두머리이고 세습하였던 왕조국가였다. 동아시아의 대부분은 1세기 전까지 거의 왕조국가였고 지금도 왕정을 실시하는 곳이 적지 않다.

국왕은 왕권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하급관료나 초야의 지식인까지 言路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求言), 申聞鼓를 설치하고 暗行御史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학자들로 구성한 측근의 문한기구를 두거나 經筵을 이용하여 자문집단을 확보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郎舍나 三司와 같은 관인과 국왕을 포함한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왕권을 보장받으려는 장치를 만들었다. 사부제도도 넓은 의미에서 왕권의 안정을 위찬 장치의 하나로 추가할 수 있다.

사부란 국왕이나 국가의 스승이란 뜻이다. 사부는 간헐적으로 존재하여 제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 시기에는 이를 사부제도라고 불릴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사부는 고전에도 등장하고 제도로 이상화시킨 고전도 있다. 신라의 國師와 고려의 國師와 王師와 조선의 山林은 사부제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사부란 국가와 국민이 받드는 이념이나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 문명을 꽃피었던 고대의 황하유역에서 사부제도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다. 삼대의 이상적인 군주가 모두 사부를 두었다고 하였고, 이들은 모두 고대의 현인이거나 후대의 사상가들로부터 학파의 원조나 성인으로 미화되고 더욱 부풀려진 느낌이 없지 않다.

동아시아의 중세는 불교가 번성하였다. 불교는 동아시아의 자생이 아니고 인도에서 발생하여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전파한 세계적 종교이고 중세에는 국교였을 정도로 중심된 사상이었다. 동아시아의 중세에 사부를 책봉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고승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北周로부터 비롯되어 隋를 거쳐 당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불교가 수용된 삼국에서도 신라는 국통을 두기 시작하였고 후기에는 국통과 함께 국사가 책봉되었다. 전형적인 고승의 사부제도는 고려에서 가장 잘 갖추었고, 이밖에 고려에 비하면 짧은 기간 존재한 국가이지만 大夏와 元에서도 전형적인 고승출신의 사부제도가 있었다.

고승출신의 사부제도는 동아시아 중세의 특징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불교에서 사부가 배출된 배경에는 많은 사원과 고승, 그리고 국가의 불교에 대한 배려와 이에 의존한 왕실의 조상숭배와 정치이념, 그리고 불교경전을 결집한 대장경과 조각과 음악, 그리고 회화를 포함한 불교예술은 불교가 국교였다는 확고한 증

논문접수일 : 2005년 9 1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www.kci.go.kr

거를 제공하였다. 가톨릭을 제외하고 서양의 중세를 말하기 어렵듯이 불교는 동아시아의 중세를 대표하는 종교였고 고승출신의 사부는 불교가 국교였다는 징표와 같았다.

이글에서는 고려와 대하의 사부제도를 연구한 기존의 성과를 기초로[2] 이를 확대하여 불교사부의 기원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개를 살피고자 한다. 사부제도인 국사는 동아시아에서 唐과 新羅와 헤이안조(平安朝), 그리고 고려에서 성행하였다. 그리고 원의 사부제도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정리하여 비교하는 소재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불충분한 토대에서 거칠게나마 거시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질정을 바란다.

1. 신화종교의 제사장과 제정일치---사부의 기원과 호칭의 다양성

사부의 제도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과 함께 하였다. 동아시아의 문명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러 큰 강 유역에서 기원하였다. 큰 강의 유역도 하류가 아닌 중상류였고,[3] 이는 고대문화의 발상지에서 나타나는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여러 큰 강의 상류는 문명탄생의 어머니였고 신화시대 지모신의 고향이었다. 청동기시대의 말기에는 강의 하류까지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이 가운데 황하유역의 주도권이 강하였으나 요하와 양자강, 압록강과 두만강 중상류, 서남의 메콩강과 살윈강의 중상류에 있던 중심지가 문화도 점차 하류의 유역으로 이동하였고, 철기시대에는 본격적인 영역확장과정에서 충돌도 빈번하였다.

漢族과 高麗(東夷)族, 蠻(苗)族, 羌族 등은 철기시대에 확립된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민족이었다. 이들은 큰 강의 유역을 벗어나 다른 유역으로 확대를 꾀하였고 황하의 중상류의 秦, 양자강의 하류의 楚, 양자강과 메콩강, 그리고 살윈강 중상류의 滇, 압록강 중상류에서 두만강과 요하로 확대한 朝鮮이 두드러진 맹주이고, 그밖에도 동맹과 부용의 관계를 유지한 여러 국가가 존재하였다. 漢의 세력이 가장 팽창하여 국력을 바탕으로 정리한 고전인 禮記와 周禮에 의하면 夏까지 소급한 師傅의 사례가 언급되고 주대에는 三公으로 분화된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미화하였다.

한국의 기원에서 언급되는 고조선은 단군왕검이라 불리듯이 神政一致의 형태였다. 다국시대, 5국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를 거쳐 고려의 통일까지 신라의 후기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분열에서 통일로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삼한에서 신정분리의 요소가 보이는 지역도 있었지만 삼국의 중반기에 이르러서야 신정분리의 요소가 강화되었다.

황하문화권에서 師傅는 尙父라고도 불렸지만 三公으로 정리되고 이는 宰相制度의 기원으로 연결되었고 官制의 정점으로 흡수되었다. 동아시아의 사부제도는 夏殷周 삼대에 이미 확립되었다고 고전에 실려 있다. 이는 尙古主義 史觀에 의하여 부족연맹체 사회의 신정사회를 미화한 기록이란 하겠다. 한국의 상고시대에도 신정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蘇塗가 있었고 그곳에는 정치범이 잠입하더라도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신성하게 여겼다고 한다. 동아시아 상고의 사부제도란 신정일치에서 신정분리의 요소가 존재하였던 蘇塗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2) 許興植 「高麗時代의 國師.王師制度와 그 機能」 『歷史學報』 67, 1975.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Ruth Dunnel The Hsia Origins of Yuan Institution of Imperial Preceptor, A.A.S ,1991.

3) 거의 모든 세계사의 개설서에는 큰 강의 하류에서 세계의 중요한 문명이 기원하였다고 정리되어 있으나 필자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중류에 가까운 상류에서 기원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점차 하류로 확대하지만 기원은 그와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큰 강인 나일강과 황하이고, 아마존강은 차츰 하류로 환경의 파괴가 진행 중이다. 이는 문명은 확대와 함께 환경파괴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도안하면서 강의 하구로 발전하였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www.kci.go.kr

2. 중세불교와 고승출신의 사부

전형적인 사부제도는 불교가 번성한 시대에 정착되었다. 가장 존숭하는 고승을 특별히 우대하는 제도이고 처음에는 國師의 시작은 남북조시대의 北朝에서 기원하였다. 北齊와 이를 계승한 隋에서 고승을 대사나 국사로 책봉한 사례가 나타났다, 수는 짧은 기간 왕조가 존속하였으므로 국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당은 왕조가 존속한 기간도 길고 국사의 사례도 다수가 확인되지만 상설화된 제도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우대되었다.

황하에서 北朝와 隋와 唐이 존재하는 기간에 동쪽에는 삼국이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번성하였으나 고구려에서 불교가 도교에 도전을 받은 시기도 있었고, 고승을 사부로 삼은 사례는 입증되지 않는다. 백제에서는 국왕이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으므로 고구려보다 불교와 변함없이 유대가 강하였음이 확실하지만 고승을 사부로 삼았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라에서는 고구려 남부지역을 확보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승인 惠亮을 우대하여 가장 위상이 높은 사찰인 皇龍寺의 주지를 맡기고 國統이라 불렀는데 이는 신라에서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는 제도의 기원과 직접 관련된다.[4]

신라의 국통의 기원은 진흥왕시의 인물인 고구려 출신 혜량이라면 국사는 통일후 백제의 옛 땅 출신인 憬興의 우대와 직접 관련된다. 신라가 확대된 영역의 통치권을 장악한 대신 그곳의 종교사상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정교를 분리시키면서 아울러 이를 협력관계로 유지한 정교의 절충이었다고 하겠다. 이로 보면 상고의 사부제도도 군사력을 바탕으로 장악한 통치권과 이에 흡수된 지역의 神聖을 인정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한 상태를 후대에 미화한 상고주의의 산물이라는 심증이 더욱 커진다.

동아시아에서 고승을 사부로 존숭하는 전통은 불교가 전파한 시기를 감안한다면 신라의 기원은 중원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편이다. 이는 민족적 단일성과 통합성이 강한 배경에서 가능한 현상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는 달리 수도도 옮긴 일이 없고 사상과 전통의 변화도 적었다.

唐의 불교는 법난으로 불리는 시련이 말기에 있었으나 수fp바퀴를 반대로 돌리지 못하였다. 당의 국사제도는 안정된 제도로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시기가 적지 않았다. 신라는 후기에 당보다 변함없이 불교가 안정되게 국가와 신민으로부터 신앙되었고 국사가 책봉되었다. 신라의 국사는 신라말의 선승을 제외하면 기록도 적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책봉하였다는 근거도 적다. 다만 신라말에는 황룡사 주지로 승정을 주관하는 國統과 불교계의 이념적 정상으로 국사가 공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고려와 대하와 원의 사부

고려가 건국한 시기에 동아시아는 당이 몰락하고 황하유역에는 五代가 번갈아 왕조를 바꾸고 양자강 유역에는 十國이 존재하였던 대분열의 시기였다. 고려 전기는 宋과 遼, 宋과 金이 각각 정치적 중심인 황하의 중원을 둘러싸고 패권을 다투었고, 그 밖의 지역에서 고려가 통일을 달성한 지 50년 지난 시기에 서북에서 大夏, 그리고 서남에서 大理가 민족을 기반으로 국가를 확립하여 독자적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강성하였다. 이러한 다원화된 동아시아에서 번성한 사상은 불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5] 이들 여러 나라의 불교

4) 허흥식, 앞에 나온 논문.

5) 성리학은 북송에서 기원하였고 남송에서 주희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불교에 비하여 영향력은 적었다고 하겠다. 다만 송과 후대의 명에서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불교사에서 주목할 사항이다. 북송과 남송에서 유불

www.kci.go.kr

사상은 차이가 컸었으나 모든 국가가 불교를 받들고 그 가운데서 고려는 국사와 왕사를 두었고 대하는 국사만 두었으며 사부제도를 철저하게 유지하였다.

중세의 대분열을 마무리한 통일국가는 元이었다. 원의 기원은 蒙古族이 소수민족으로 지배층의 기반이었지만 오랜 분열을 잠재우고 明과 淸에 이르기까지 대통일기를 열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사상 가장 방대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몽고는 무력을 이용한 정복에 철저하였지만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였다. 몽고보다 앞서 역사상 가장 방대한 지역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라센은 政敎의 일치를 내세우면서 신앙을 통제하였으므로 원의 사상적 특성과는 달랐다.

원대에는 송대의 儒佛道 三敎의 사상적 대결은 계속되었지만, 성리학도 漢族의 정통성을 합리화시키려는 華夷觀이 아닌 牧民思想의 실용성이 강화되면서 남송보다 정치에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원대의 성리학은 한족 중심의 華夷觀을 강조한 송과 명의 성리학과 달랐고, 소수민족이 지배층의 주축을 이룬 원은 왕실의 종교는 라마교였고, 법신사상과 부처의 환생에 化身을 강조한 活佛思想이 강하였다.

원에서는 國師와 더불어 帝師를 두었으며 제사는 국사보다 위상이 높았다. 원의 제사와 국사는 라마교의 活佛에 사상의 기반을 두었고 실제로 라마교 승이 책봉되었다 몽고족은 세력기반이 大夏가 있었던 지역과 연관이 깊었고, 그 불교의 영향이 컸다. 원에서 한족의 전통사상을 불교와 도교를 흡수하여 정립한 성리학이 통치의 이념으로 널리 보급되었고 도교와 더불어 불교에 심각한 도전을 하였으나 크게 바꾸지 못하였다. 원제실은 한족이 신봉하는 선종보다 장족의 라마교에 친근하였고 라마를 제실의 제사로 삼았다. 제사란 북송과 요가 대치한 시기에 황하의 상류와 중앙아시아에 번성하였던 大夏[6]에서 제도화하였고 몽고족의 원도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았다.[7]

원이 대하를 정복하였고 대하와 티베트와 유대가 기밀하였고, 원은 그들을 몽고족 다음으로 우대하였던 사실 보거나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원이 확장되었음을 보면 원의 사부제도가 대하 국사의 영향을 받았음은 확실하다. 다만 이와 함께 고려의 국사와 왕사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고려에서 국사와 왕사로 二師制度로 확립한 사실도 원의 帝師와 國師도 같은 이사제도라는 사실이 상통한다. 원도 처음에는 국사만 두었으나 고려 불교계와 관계가 긴밀해진 시기에 파스파를 제일대 제사로 책봉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명칭으로는 고려의 국사와 원의 국사를 상통한다고 보고, 고려의 왕사와 원의 제사를 같은 부류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려에서 국사는 왕사보다 높았으나, 원에서는 국사보다 제사의 위상이 오히려 높았기 때문이다.

고려의 국사와 왕사의 이사제도는 원의 이사제도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영향을 받거나 변질되었던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같은 명칭인 國師를 國尊으로 호칭이 바뀐 원인은 바로 원의 국사와 혼동을 피하기 위한 하향조정임이 확실하다. 제사 제도가 확립되면서 국사를 國統으로 불린 시기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존보다 조금 향상된 어감을 주는 명칭이고 신라의 국통과 상통하는 승정권을 가졌음이 이 시기의 큰 변화였다.

고려후기에 국사의 후신인 국존이나 국통이 승정권을 장악한 제도의 변화는 원의 제사의 막강한 권한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의 제사가 제도로 확립한 시기에 고려의 국존과 후의 국통은 승정권을 가

도 사상의 논쟁이 심하였으나 불교의 우위가 대체로 지속되었으나 명에서는 불교를 보호한 국왕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리학의 우위가 확립되었다.

6) 大夏는 宋에서 西夏라 불렀으나 그들의 자칭은 아니었고 북송에서 이를 격하시킨 용어이므로 환원시켜 대하라 부르도록 하겠다.

7) 루스의 논문.

www.kci.go.kr

지거나 출신지를 승격시키는 우대를 받았으며, 이는 라마교 출신의 제사에게 관할권을 주었던 제도와 상통하는 원제도의 영향이고 신라의 국통과는 관계가 적다고 추정된다.

고려의 위상은 원세조시부터 왕실통혼으로 駙馬國이었고 황금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제나 부마국이었음을 수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충선왕은 황제의 선거권을 행사하고 丞相으로 우대를 받기도 하였다. 고려 출신의 공녀가 두 차례 황비가 되었을 정도로 고려왕실과 원의 황실과는 통혼으로 유대가 강화되었고, 불교를 통하여 왕실의 원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고려 불교의 장엄과 사경은 원제실의 원찰을 장식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고려의 국존과 국통은 제사보다 명칭상 위상이 낮았지만 국왕보다 상위의 상징적 위상이 원의 제사보다 높았다. 고려의 국사와 왕사의 호칭을 완전히 회복한 시기는 원에서 자주성을 회복한 시기보다 훨씬 앞선다. 이는 고려의 불교계와 원제실과 유대가 향상된 원인도 있겠지만, 원에서 帝師로 일원화되고 국사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고려의 국사가 호칭을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용어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원의 후반기에 고려 불교의 위상은 호칭에서 완전히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기능면에서 원의 제사와 상통하는 관부의 설치와 승정권의 확보라는 전에 없던 기능의 향상이 확보되었다. 원의 제사는 라마교의 영지에 대한 관할권을 정교일치의 형태로 인정받았지만 고려의 국사는 출신지의 승격이나 부모의 추증 이외에 관할지는 없었다. 국토의 장악은 국왕의 통치권에 속하고 다만 출신지를 포함한 연고지의 승격과 만년의 사원인 하산소가 국왕의 배려였으나 이들 사원이 거대한 사원으로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원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국사나 왕사가 국왕으로부터 印綬를 받았고, 국왕이 바뀌면 이를 새로운 왕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국왕의 하명을 기다리는 관례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사에게 인장을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한 제도는 원의 제사에서 있었고, 고려의 국사나 왕사도 같은 기능과 절차를 받았음이 앞선 시기에는 없던 현상이 무렵부터 확인되기 때문이다.

원의 제사는 토번이라는 그들의 관할지를 가지고 통치권에 합류하였으나 고려의 국사나 왕사는 이와 달리 승과에 합격하고 승정을 관료처럼 관리하던 예부에 속한 승록사의 관할에서 확대되었으므로 기원과 기반이 달랐다. 그러나 원의 제사가 가진 승정권을 고려의 국사나 왕사가 가지는 큰 변화는 독립된 관부인 참회부나 원융부와 함께 주목할 대상이다.

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독립성을 확보한 공민왕 말기에 실권을 가졌던 신돈은 승록사제조로서 승정권을 장악하고 국상와 왕사보다 한층 강화된 일반 국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고려의 전통과 괴리된 제도에 대한 회복이 시도되었던 공민왕시에 일반관인과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었다. 이는 고려의 불교계가 다원적인 종파와 승정을 탈피하지 못한 기반에서 일반관료들이 가지는 전통적인 제도인 祖宗成憲과 충돌이 불가피하였다는 이론이 가능하다.

고려에서 고승 출신의 국사나 왕사가 원의 사부보다 조신과 심각한 충돌이 공민왕 후반기부터 화엄종과 조계종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조신들도 두 편으로 갈라져 후원하면서 고려 국가의 전통과 충돌하면서 국력을 소모시켰다.[8] 이는 국가의 운명에도 불리한 징조였고, 불교계의 갈등을 틈타 성리학을 닦은 조신들이 불교를 배척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고려의 건국은 변방에서 수도를 정하고 일으킨 반란에 기반을 두었으며,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하였으나, 고려에서 조선의 왕조 변화는 고려의 건국에 비하면 정변에 불과한 차이가 있었다. 반란과 정변을 비교하

8) 허흥식 「공민왕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갈등」 『太古思想』 1, 불교춘추사, 2001.『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 집문당, 2004.

www.kci.go.kr

면 반란이 좀더 심각한 사회변화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건국은 불교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조선의 건국은 정변에 불과하지만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사상계의 주도권이 변화를 예고하는 분기점을 이루었다. 이는 정치사와 더불어 사상사가 맞물린 더 큰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의의가 있다. 국사와 왕사제도는 조선의 태조시를 제외하고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다.

대하의 국사제도가 원의 제사로 연결되었다 보더라도 고려의 고승의 사부제도는 중원의 왕조보다 좀더 철저하게 지속된 특징이 있었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고승의 사부제도는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소재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사는 정치사보다 사상사와 관련이 깊게 취급되었고, 사회사와 관련시키는 관점으로 확대되었다. 시대구분에서도 사회사와 사상사는 상관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나 사부제도는 왕조국가에서 통치권의 정점인 국왕과 대비되는 종교의 정점에 위치한 존재로 대비시켜 살필 주제이다.

국가의 통치권은 정치사의 중요한 지표이고, 사상사에서 고승 출신의 사부는 사상사와 관련도 있지만 불교계의 정점을 차지한 존재인 만큼 통치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고려전기의 국사와 왕사처럼 상징적인 우대를 받은 기능만 있었던 시기와는 달리, 원의 제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실질적 권한이 증대된 고려후기의 국사와 왕사의 경우는 사회사나 사상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정치사의 지표로 기능이 크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싶다.

4. 불교와 동아시아 중세의 특징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고 많은 인구를 포용한 대륙이다.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는 가장 많은 인구를 포용한 지역이다. 오랜 전통과 다양한 민족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었고, 지금은 정치 공동체로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몽고와 러시아에서 독립한 신생국가가 있다. 동아시아는 대륙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 고원과 그 북쪽 배사면에서 기원한 두 개의 큰 강인 황하와 양자강의 유역과 그 북쪽으로 흐르는 예니세이강 동쪽에 위치한 동시베리아를 포함한 지역의 대륙과 반도와 섬을 포함한다.

동아시아는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국가의 기원이 오래고 지속성이 강하였다. 서구에서 5세기 말부터 중세초에 이르는 민족대이동이 있었고 가톨릭이 전성시대를 이룬 시기가 있었듯이 동아시아는 이보다 앞선 4세기부터 민족이동이 심하였고 남북조시대를 거쳐 남아시아에서 기원한 불교가 중세에는 종교로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동아시아도 민족의 이동과 혼합이 황하유역의 중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는 제도야 말로 동아시아 중세의 사상과 종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지표라고 하겠다.

서구의 중세는 가톨릭이 사상과 종교의 보편성을 제공하였고, 왕실간의 교차혼인, 그리고 십자군 전쟁 등에 의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시기보다 오히려 국가간 보편성이 강하고 귀족간의 유대가 넓었으며 민족주의의 요소는 적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는 중원을 구심점으로 여러 민족의 각축과 동화에 의한 혼혈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9] 흔히 漢族이라 불리는 다수의 민족은 민족의 특성을 상실한 혼혈민족이고 생활습속에 이르기까지 확대를 거듭하였다. 한족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양자강과 황하유역에서 멀수록 혈연과 언어, 그리고 문화전통의 고유성이 강한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였다.

동아시아 중앙에 오늘날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란 오늘날의 국가 이름이고 1911년 또는 1949

9) 呂思勉「中國民族史」 東方出版中心, 1987.

www.kci.go.kr

년 이후에 정식 국호로 불렸고, 중원에 있는 나라, 또는 수도를 중원에 둔 나라라는 정도의 의미로 자체보다 주위에 있던 민족과 국가가 일찍부터 사용하였다. 중국이란 변방의 나라가 붙여준 이름이고,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단명한 왕조가 자주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혼혈민족인 한족과 혈연적 유대가 강한 소수민족의 번갈아 건국하였다. 중세이전의 중원은 소수민족이 분열의 시대를 주도하였다면, 중세부터 역전되어 소수민족의 遼와 金 등 동아시아의 북방민족의 우세를 확보하고 원과 청은 소수민족으로 중원의 통일과 안정을 주도하였다. 이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족과 국가를 오랫동안 계승하고 유지한 세계사에서 차지 어려운 사례이다.

동아시아의 황하유역에서 일찍이 한자가 기원하였고, 주위에 있던 여러 민족의 문자생활에 깊이 영향을 주었다. 황하의 중류 위수분지 중원은 짧은 기간 통치력 확보와 민족이 특성을 교환하는 블랙홀이었다. 한족문화란 특성을 찾기 어려운 혼합된 문화이고 문자와 제도는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들이 안정된 문화와 생활전통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국과 일본, 심지어 서남부에 비하여 단명한 왕조가 주마등처럼 바뀌었다.

대체로 혼혈민족과 변방에서 진입한 소수민족이 세운 국가가 번갈아 정치의 중심지인 중원에서 각축을 벌였다. 단명하였던 중원의 왕조국가는 독립된 문화를 확립하지 못하고, 전왕조의 문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민족의 혼혈뿐 아니라 문화도 답습된 전통일 뿐이고, 새로 형성되기 어려웠다. 새로 진입한 민족이 통치의 안정을 찾을 정도에 이르면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10]

민족과 문화전통의 구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을 장악하면 단기간에 광범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전왕조의 문물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경향이 놀라우리만치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과 일본과 양자가 상류에 있던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의 문화권에 동화되어갔다. 민족이란 순수한 전통을 가지기도 어렵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사용하기도 어렵고 오랜 전통의 통합이 만들어 낸 용어이라고 하겠다.[11]

동아시아의 중세는 당이 망한 다음에 대분열의 시기가 원의 대통일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 계속되었다. 전국시대와 남북조시대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대분열의 시기였지만 불교가 공통으로 번성하였다 특징이 있었다. 특히 이 시기를 지나 원의 1세기를 합쳐 불교의 대표적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는 전형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고승의 사부제도는 당과 오대를 포함하여 앞선 시기와 신라에도 있었지만 가장 지속적으로 책봉되어 전형적인 제도를 이루었던 시기는 400년에 걸치는 시기였다. 다만 고려를 제외하면 중원에 있었던 요금, 그리고 북송과 남송은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는 제도가 당보다 오히려 드물었다.

고려가 가장 장기적이고 안정된 왕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고려는 자제가 500년 가까이 존속하였고, 이를

10) 소수민족이 중원을 장악한 다음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이러한 노력이 건륭제의 하여 관찬으로 완성된 欽定滿洲源流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오늘날의 중국에서 보듯이 관심을 기울인 학자는 거의 없는 가치 없는 책으로 무시되고 제대로 주목된 연구가 없다. 지금 중국은 中華民族이라는 민족통합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혈통합주의를 내걸고 미래 지향의 목표를 민족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Fan Wenlan, "Problems of Conflict and Fusion of Nationalities in Chinese History" *Social Science in China*, Vol.. No.1.(March, 1979).
費孝通 Fei Xiaotong,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중화민족이란 모든 민족을 포함한 가상적 민족이고, 국가주의에 미래지향의 민족으로 자리매김하는 용어라고 하겠다.

11) 민족도 끊임없이 분열과 통합을 계속하는 특성이 있다. 때로는 국가와 민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모순이 있지만 필자는 적어도 20세대가 지난 700년 정도의 통합이 민족의 형성에 작용하나고 말하고 싶다. 몽고족은 징키스칸 이후 700년이 되었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韓民族이란 용어보다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고려족이란 용어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선족보다 학술상 용어로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www.kci.go.kr

신라의 합치면 국사가 책봉된 시기만 합쳐도 700년이 넘는다. 고려는 신라와 달리 국통과 국사의 이원적인 구성이 아니라, 국사와 왕사를 중심으로 二師制度이었지만 왕사와 국사는 기능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원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고려가 존속하였던 시기에 이보다 단기간 존속하였던 대하와 원에서는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는 제도가 고려에 못지않게 철저하게 시행된 특성이 있었다. 대하와 원의 사부제도는 같은 시기의 고려와 더불어 고승의 사부제도가 가장 안정되었고 특성도 각각 있었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헤이안조 이래 국사가 존재하였지만 지역마다 다수가 존속하였고 불교의 위상이 신도보다 낮았으므로 국사가 다리를 놓은 등 사회봉사에 참여할 정도였다.

고려 국사는 신라의 國統과 國師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신라의 국통은 통일 전에 이미 있었으나, 국사는 통일 후에 책봉되어 각각 1인씩 있었다. 국통은 皇龍寺주지를 겸하면서 전국의 僧官을 통제하는 실질적 권한이 컸으나, 국사는 당시의 수행이나 교리로도 가장 추앙받는 고승으로서 책봉되었고 실질적 권한은 적었으나 국통보다 좀더 추앙된 경향이 있었다.

고려 초에 국통이 없어지고 국사 외에 왕사를 추가하여 각각 1인씩 책봉하였다. 이들은 終身職이었지만 대체로 승계가 가장 높고 추앙되는 고승이었으므로 책봉 후에 오랫동안 생존한 예는 적었다. 고승의 사부 책봉은 중원의 왕조에서 제도화한 시기는 원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고 일본은 다수가 전국의 곳곳에 존재하였으므로 전형적이고도 지속적인 모습은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12]

맺 음 말

오늘날 적으나마 왕국이 있지만 거의 입헌군제이고 다수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독재와 세습으로 얼룩진 국가와 재벌도 민주국가나 민주기업를 표방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근대는 물론 고대부터 모든 혁명은 모두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였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란 열매를 맺은 시기는 250년이 못된다.

왕조국가의 전형을 이루었던 동아시아의 중세에 고려와 대하, 그리고 원에서 공통으로 불교의 고승을 사부로 우대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국왕의 스승인 사부를 두는 제도는 상고의 고전에도 있지만 실제로는 복속된 지역의 주임이나 민족과 통합을 위한 정교일치를 시도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아시아의 중세에는 불교의 보편성이 강화되고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는 전형적인 사부가 고려와 대하, 그리고 원에서 제도화 하였다. 이 가운데서 고려의 사부는 국사와 왕사의 이사제도였고 신라의 국사를 강화한 특징이 있었다. 신라의 국사는 복속된 지역의 민심을 받들어 민족의 통합을 이루려는 정교분리의 한 형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산의 제도는 신라말의 선승을 우대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선종의 조사를 교조와 동일시하는 계승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석하고 싶다. 고려초에 이르면 선승뿐 아니라 교종승과 균형을 이루면서 왕사를 추가하였고 이는 조선 태조 때까지 계속되었다.

중원을 장악하였던 송과 요와 금에 사부제도는 수당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하였다. 이는 황제가 교권을 장악하여 독재권을 강화하였다는 통치상의 변화와 관련된다고 보고 싶다. 이와 달리 고려는 전형적인 사부

12) 帝師와 國師의 제도가 확립된 원의 제도는 大夏와 高麗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www.kci.go.kr

제도를 완성하였고, 고려보다 늦게 200년간의 왕조를 유지한 대하도 사부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였다.

대하의 사부제도는 고려의 그것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대하는 티베트에서 기원한 라마교를 신봉하였고 라마교는 활불사상을 바탕으로 선종의 조사숭배보다도 좀더 철저한 환생사상을 바탕으로 삼았다. 원의 사부제도는 라마교를 토대로 삼은 대하의 사부제도와 관련이 있고 제사는 라마승으로 책봉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원은 라마교의 정교일치를 인정하여 제사에게 관할지를 인정하고 사상과 종교의 수장으로 통치권의 수장인 황제의 통치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교분리를 통하여 정치와 사상, 그리고 종교의 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국사와 제사는 고려와 원의 사부제도를 대표하고 정교분리를 상징하는 꽃과 같았다. 고려와 원이 망하면서 불교의 고승을 사부로 책봉하는 제도는 사라졌고 중세의 동아시아서 융성한 불교의 전성기도 변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사상과 종교는 정치의 부속으로 전락하였고 동서를 소통시키는 새로운 국가와 민족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원은 소수의 민족을 주축으로 가장 다수의 여러 민족과 가장 방대한 영토를 유지하면서도 민족과 종교의 갈등은 적었다. 원은 지구상의 가장 방대한 대륙인 아시아의 대부분은 물론이고 유럽가지 평정하여 사라센보다 좀더 세계사로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의 문물이 유럽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잠든 중세를 깨웠고 이후의 서구의 대항해 시대를 촉진시켰다.

21세기 벽두부터 세계는 민족과 종교의 갈등으로 곳곳에서 테러로 얼룩지고 있다. 민족과 종교를 극복하지 못한 팽창주의가 지구의 대재앙을 자초하여 곳곳에서 지구촌을 검은 연기로 덮고 있다. 동아시아는 기독교와 이슬람, 그리고 민족의 갈등과 분쟁을 좌시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700년 전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룩한 통치권과 민족, 그리고 종교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시 세계사에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Abstract

Institution of Buddhist Masters in Medieval East Asia

Heo Heung-sik (Profes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medieval East Asia, the institution of Buddhist Masters is found in Koryŏ Korea, Tangut Xia, and Mongol Yuan. In Koryŏ, the system was composed of Royal Preceptor (王師) and State Preceptor (國師). The institution of State Preceptor became prominent in the late Silla as eminent monks of the Son (Zen) School were given more respects and privilege than National Monastery Government(國統). The Royal Preceptor was added in early Koryŏ and continued into early Chosŏn.

During the Khitan Liao, Han Chinese Song, and Jurchen Jin periods, the institution of Buddhist Masters declined. This was due to the growth of imperial power that came to dominate the Buddhist Order. However, the institution continued to thrive in both Koryŏ and Tangut Xia. The institution of Buddhist Masters in Tangut Xia had different origins than that of Koryŏ. Tanguts worshipped Tibetan Lamaism that placed great emphasis on Living Buddhas. The Mongol Yuan later implemented similar system based on the Tangut model, and Mongols invested eminent Lamas as Imperial Preceptors (帝

www.kci.go.kr

師). The Mongol court recognized the caesaropapism of Lamaism, and the imperial preceptor controlled both the secular and religious power within Tibet.

State and Imperial Preceptors represented institution of Buddhist Masters and reflected the division of secular and religious powers. However, with the fall of Koryŏ and Tangut Xia, the institution disappeared. Buddhism fell from its lofty place, and philosophy and religions became subordinate to the political power in medieval East Asia.

Key words: Buddhist Masters, State Preceptor, Royal Preceptor, Imperial Preceptor, Tangut Xia, Mongol Yuan, Koryŏ,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Lamaism, Living Buddha, Tibet.

www.kci.go.kr